

同春堂 宋浚吉家の 여성문학 전통과 문화사적 의의- 김호연재와 청송심씨를 중심으로*²⁹⁾

문희순**

<차 례>

1. 머리말
2. 宋浚吉의 인문정신과 조화로운 삶의 추구
3. 金浩然齋 한시집 『浩然齋遺稿』의 편찬·전승
4. 靑松沈氏 국역 한시집 『호연직유고』의 필사·향유
5. 맺음말 - 宋浚吉家 여성문학 전통의 문화사적 의의를 곁하여

<국문초록>

동춘당 송준길(1606-1672)은 17세기 호서사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유현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리고 송준길의 증손부 김호연재는 조선을 대표하는 여성 한시집 『浩然齋遺稿』를 생산하였고, 김호연재의 증손부 청송심씨는 『浩然齋遺稿』의 국역본 『호연직유고』를 필사하였다. 문학을 사랑한 시증 조할머니 김호연재. 그리고 시증조할머니가 남긴 문학작품을 사랑한 증손부 청송심씨. 송준길가의 이러한 여성문학 전통은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그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필자는 송준길가의 여성문학 전통과 문화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동춘당가의 여성들은 각기 다른 성씨의 여성들이 송준길 가로 시집와, 작계는 회덕의 송씨 가문을 일구어 내었고, 크게는 호서사림의 선비문화를 내조하고 흥기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전통시대에 가문의 융성은 끈끈한 혼맥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어느 가문의 사람을 사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 551-A00059).

** 배재대학교

위 또는 며느리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가문이 일신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탄탄한 혼맥 네트워크에 의해 가문의 정신적·경제적 세력이 향상되기도 한다.

둘째, 김호연재는 송준길가 여성문학사의 구심에 존재한다. 김호연재의 문학작품은 『浩然齋遺稿』 소재 한시 작품 141수, 국역본 『호연재유고』에만 실려 있는 103수를 합하여 총 244수이다. 김호연재는 뛰어난 문학적 표현력과 실천을 겸하여 ‘知行兼備’의 모습을 갖춘 삶을 살았다. 명문가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부와 자의식이 실천적 지성으로 승화되었던 것이다. 김호연재의 자아 정체성 탐색을 위한 몸부림은 문학작품 도처에서 표현되어 나타났다.

셋째, 청송심씨의 『호연재유고』는 호서지역에서 찬술·유통된 여성한시의 한글번역이라는 중요한 문화현상을 말해준다. 청송심씨의 『호연재유고』는 한시 학습과 감상 주체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증거자료들이다. 김호연재의 작품을 필사·암송·독해·번역(한글→한문, 한문→한글) 이라는 다양한 방식의 문학향유를 실천하였다. 송준길가는 이러한 문화 행위의 흔적들이 오늘날까지 아주 완벽하게 전수되고 있다. 이것은 송준길가 여성들의 한시작품 향유의 다양한 방식과 더불어, 여성이 문학창작 행위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반증한다.

핵심어 : 동춘당 송준길, 김호연재, 청송심씨, 호연재유고, 호연재유고, 여성문화

1. 머리말

이 논문은 호서사림 同春堂 宋浚吉(1606-1672) 家에서 金浩然齋 (1681-1722)¹⁾의 한시집 『浩然齋遺稿』와 김호연재의 증손부 靑松沈氏

1) 김호연재는 송준길의 증손부로 남편은 송요화(1682-1764)이다. 송준길(媿曾祖父) →송광식(媿祖父)→송병하(媿父)→송요화(夫).

(1747-1814)²⁾에 의해 필사된 국역본 『호연지유고』³⁾가 세대를 달리하며 끊임없이 편찬·전승·향유되어 내려온 여성문학 전통의 원동력을 탐구하고자 시도되었다.

김호연재는 동춘당가 여성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여성인물이다. 문학작품으로 한시집 『浩然齋遺稿』와 산문집 『自警篇』, 한글편지 세 건이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김호연재의 군자다운 행실과 삶의 모습은 김호연재 후손들의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⁴⁾ 그런데 김호연재의 증손부 청송심씨는 시증조모 김호연재의 한시 작품을 한글로 번역한 『호연지유고』를 필사하였다. 청송심씨는 68세에 운명하였는데, 생애를 마치기 두 달 전까지 사력을 다하여 『호연지유고』를 필사하였다고 후기에 썼다. 이렇듯 동춘당가에서 여러 이본의 한문본 『浩然齋遺稿』와 국역본 『호연지유고』가 지속적으로 생산·유통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여성문학사에서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문화 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

동춘당가의 김호연재에 대한 존모의식은 김호연재의 친정 부모와 형제들에 대한 기록물의 보존으로까지 이어졌다. 김호연재의 친정 부모 김성달(1642-1696)과 이옥재(1643-1690)의 부부시집 『안동세고』, 친정형제와 서모가 함께 주고받은 시집 『연주록』도 현전 유일본으로 호연재 후손가에 소장되어 내려왔다. 김성달과 이옥재의 한글편지, 김성달의 친필 한시, 형제들의 수창한시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⁵⁾

2) 청송심씨는 김호연재의 증손부로 남편은 송계래(1748-1799)이다. 송요화(媿曾祖父)·김호연재(媿曾祖母)→송익흠(媿祖父)→송기연(媿父)→송계래(夫).

3) 청송심씨는 시집의 제목을 『호연지유고』라 하였으나, 후손 누군가가 이 시집을 장정하면서 표제를 『曾祖姑詩稿』上·下 두 책으로 분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송심씨의 시제를 따르기로 한다.

4) 송익흠(아들) 저 <遺事>, 김중취(외손) 저 <事實記>, 송명흠(종질) 저 <遷葬時祭文>·<墓誌>, 김원행(從甥) 저 <小大軒公墓表> 등에 전해진다.(宋政熙(1802-1881)편저, 『송씨가승』 참조)

5) 『선세언독』에는 송준길, 송준길의 처부모 정경세 부부, 송준길의 현손 송익흠에 이르기까지 송씨 4대와, 혼맥으로 이루어진 외가 인물 포함 40명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김호연재의 친정어머니 이옥재의 편지는 김호연재의 언니에게 보낸 것이고, 친정아버지 김성달의 편지는 비 순이에게 보낸 것이다. 김호연재는 19

조선시대 여성 엘리트들의 문학 행위는 혼인과 함께 묻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시대와 남성의 요구, 그리고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여성 스스로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엘리트 여성들은 혼인 이후, 문자에 대해서 ‘한결같이 무능한 사람처럼(一如無能者)’⁶⁾ 행동하였고, 그러한 여성의 행동이 사후에는 높이 칭송되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조선의 시대 분위기 속에서 김호연재는 비교적 유연한 문학작품 활동을 하였고,⁷⁾ 작품 속에서 거침없이 자아 존중감이 표현되었으며, 후손들은 그러한 김호연재의 삶과 작품에 대하여 존모심을 가졌다.

동춘당가의 여성문화가 남다른 점은, 이 집안에 전해내려 오고 있는 각종 문헌과 물질문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12세대가 남긴 400여 건의 한글편지는 바로 엇그제 소통되었던 것처럼 보존 상태가 오롯하다. 그리고 그 한글편지 행간에서 만나는 여성의 목소리와 역할은 우리의 상상 너머에 있다. 동춘당가에서 여성문화가 면면한 전통으로 내려올 수 있었던 저력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필자는 이 저력의 핵심에 송준길이라는 인물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송준길의 인문정신, 그리고 조화로운 삶을 생애가운데에서 실천하고자하였던 의식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과 여성문화에 일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송준길의 후손들은 선조의 이러한 여성의식을 편견 없는 여성문화전통으로 계승시켰다고 생각한다.⁸⁾

세에 송요화와 혼례를 치렀다. 이미 10세 때에 어머니 이옥재, 16세 때에 아버지 김성달이 운명한 뒤였다. 그럼에도 김호연재 후손 송씨 가에는 이옥재와 김성달의 친필 한글편지가 소장되어 있다. 『청주유목』은 김호연재의 아버지 김성달과 김호연재 형제들의 시를 묶어놓은 필첩이다. 김호연재 친정 형제들은 김호연재가 살았던 법천을 자주 방문하였고, 그 때마다 수창시를 남겼다.

- 6) 농암 김창협이 <망녀오씨부묘지명>에서 똑똑한 셋째 딸 金雲(1679-1700)의 죽음을 애도하며 표현한 말이다.(문희순, 「호서지역 여성 한문학의 사적전개」, 『한국한문학연구』39, 한국한문학회, 2007, 91~92쪽 참조.)
- 7) 김호연재는 자주 堂姪들과 함께 생활공간인 회덕 법천 일대의 산과 계곡, 동춘당 유적들을 탐방하며 시를 지었다. 그리고 당질들이 지은 시구에 일일이 비점을 찍어가며 논평해 주기도 하였다.
- 8) 송준길은 48세 때(1653년, 효종 4) 8대 조비 고흥유씨(1371-1452)의 정려를 받기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정려비문도 지었다. 고흥유씨 사후 200여 년 만의 일이었다. 고흥유씨는 개성에서 남편 宋克己가 22세의 나이로 죽자, 네 살 된 아들 宋愉

김호연재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졌고 일련의 연구업적이 단행본으로 묶여지기도 하였다.⁹⁾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호연재 한시집의 이본과 작품의 수에 대해서는 손찬식¹⁰⁾, 윤현숙¹¹⁾ 민찬¹²⁾ 등의 선행연구가 있다. 그런데 이 논문들에서는 김호연재의 시가 30여 편이나 수록되어 있는 시집 『연주록』의 존재가 빠져있다. 『연주록』이 발굴되기 전에 연구되었기 때문이다.¹³⁾ 그리고 한시 작품 수도 손찬식은 137수, 윤현숙과 민찬은 136수로 분석하였는데, 현전 김호연재 한시 작품 수는 141수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송준길가 여성문학 전통의 문화사적 의의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를 데리고 시가가 있는 회덕으로 내려와 평생을 살았다. 송준길을 포함한 회덕 거주 은진송씨는 모두 고흥유씨의 후손이다. 송준길은 회덕거주 은진송씨의 영원한 할머니 고흥유씨의 위선 사업을 도모하며 여성의 존재에 대하여 크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송준길의 당고모 李雪峯도 뛰어난 여성문인이요 서예가였다. 李雪峯은 연경재 성해응(1760-1839)의 기록에 의하면, 성해응 당대 까지만 하여도 한시 20여 수가 전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허균(1569-1618)의 『학산초담』과 홍중인(1677-1752)의 『동국시화회성』 등에 절구시 한 수가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구름 걷힌 하늘 물처럼 맑고, 누대는 높아 날아갈 듯하네. 끝없이 내리는 긴 밤의 빗줄기, 고운 풀빛 십년의 그리운 생각.(雲斂天如水。樓高望似飛。無端長夜雨。芳草十年思。)” 이와 같이 송준길 가에는 조선 전기부터 절의와 문학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가문을 일신한 여성들이 포진되어 있었다.

9) 열상고전연구회에서 편하였다.(『호연재 김씨의 생애와 문학』, 보고서, 2005.) 이 책에는 구지현·허경진·손찬식·이숙희·김미란·박무영·윤현숙 등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10) 손찬식, 위의 책, 151~191쪽.

11) 윤현숙, 「호연재 김씨 시 연구」, 목원대 석사논문, 2001, 1~112쪽.

12) 민찬, 『김호연재의 한시세계』, 다운샘, 2005, 1~200쪽.

13) 『聯珠錄』은 『安東世稿』의 부록으로 실려 있고, 김호연재 친정 형제와 서모의 시집이다. 필자는 이 시집을 김호연재 10세손 송봉기 가에서 발굴하여 역주서를 낸 바 있다.(『조선후기 가족연가 「안동세고」·「연주록」』, 대덕구, 2006.) 본 고에서 인용된 한시의 번역은 이 책을 따랐다.

2. 宋浚吉의 인문정신과 조화로운 삶의 추구

동춘당은 17세기 호서사림을 대표하는 유현 가운데 한 사람이다. 조선 후기 정치와 학문, 사상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대전 회덕을 호서유학의 거점으로 자리하게 한 장본인이다.¹⁴⁾ 송준길은 율곡 이이(1536-1584)의 학맥을 이으면서도, 퇴계 이황(1501-1570)을 평생 스승으로 삼고 본받을 정도로 기호·영남학파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이는 동춘당이 영남학자 우복 정경세(1563-1633)의 사위가 된 데에도 그 배경이 있으나, 타고난 자질이 온후하고 순수한 점도¹⁵⁾ 작용하였을 것이다. 현전 동춘당 애장 서책 가운데 영남학자 관련 자료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동춘당은 특히 퇴계의 학문을 존숭하였다. 동춘당은 퇴계의 <屏銘>을 대자로 써서 판각하기도 하였는데, 현재 이 판각을 탁본 한 『退陶屏銘』첩이 전해진다.¹⁷⁾ 그리고 1672년 1월 11일 밤, 꿈속에 퇴계를 모시고 함께 자면서 간절한 가르침을 받았는데,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남은 향기가 몸에 가득하므로 그 꿈의 내용을 주제로 <記夢詩>¹⁸⁾를 짓기도 하였다.

14) 송준길은 향촌생활과 벼슬살이를 병행하며 향촌에 있을 때에는 鄉案과 鄉約을 제정하여 사림이 주도하는 성리학적 향촌질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송시열·송규렴 등과 만든 『회덕향안』상·하권이 그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15) 『현종개수실록』13년 12월 5일, 송준길 졸기. “준길은 타고난 자질이 온후·순수하고 예법과 태도가 탁 트여 그를 바라보면 빙옥과 같았다. 그가 학문에 힘을 얻은 곳은 무엇보다도 『심경』·『근사록』 등의 서적에 있었다. 본조의 선현에 있어서는 이 문순공 황을 평생 사범으로 삼았다.(浚吉天資溫粹。儀度瑩澈。望之如冰玉。其學得力。最在『心經』·『近思』諸書。而沿溯濂洛之淵源。於本朝先賢。以李文純公渥爲終身師法。)”

16) 『퇴계고봉서척』3책(이황·기대승)·『회재집』(이언적)·『주문작해』7책(정경세)·『우복집』5책(정경세)·『명현유적』·『퇴도병명』(이황 작, 송준길 서) 및 퇴계 이황의 친필시고 등이 소장되어 있다.

17) 『退陶屏銘』에는 ‘송정병오맹추사월’이라는 연대와 ‘동춘옹’의 낙관이 있다. 병오년은 1666년(현종7)으로 동춘당 61세 때이다. <屏銘>은 요순 이래 역대 성현이 전한 心法을 80자로 기록한 것이다.

18) “평생 동안 퇴도옹을 흠양하였더니, 사후에도 정신이 감통하였네. 오늘 밤 꿈속에서 가르침이었으나, 문득 깨고 보니 달빛만 창가에 가득하네.(平生欽仰退陶翁。沒世精神尙感通。此夜夢中承誨語。覺來山月滿窓櫳。)” 이 시는 송준길의 친필로 『

1672년은 동춘당이 66세로 생애를 마친 해이다.

한편 동춘당은 거문고와 피리 연주를 즐기기도 하였다.¹⁹⁾ 1669년 64세 되던 해에는 사위 민유중에게 금강 가에 정자를 짓고 여생을 한가롭게 관조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²⁰⁾ 이러한 인생 말년의 바람은 손자에 의해 도모되어, 이듬해인 1670년 죽음을 불과 2년 남기고 ‘保晩亭’이 완성되었다.²¹⁾ 동춘당은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금강이 한 눈에 보이는 보만정에서 여생을 보내며 歌曲을 감상하는 운치를 즐겼다. 황세정이 기록한 동춘당 유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선생이 퇴계 선생의 〈어부사〉를 등사해 책 속에 끼워 두었다. 黔潭으로 온 뒤에 이웃에 사는 노래 잘하는 洪柱石을 만나 그에게 〈어부사〉를 부르게 하며 ‘퇴계의 이 곡은 실로 뛰어난 歌詞이다. 정송강의 〈관동별곡〉도

선세기몽첩』에 수록되어 있다. 『선세기몽첩』은 꿈에 관한 시를 모아 첩으로 만든 것이다. 이 책에는 송준길·송광식·송병하·송요화·송명흠·김수항·송시열·이숙 등의 친필 시가 수록되어 있다. 송준길의 5대손 송기연이 편집하였다.

19) 『동춘당일기』. ○1646년(인조 24) 5월 6일. “夜. 洪叔探訪” ○7일. “洪友又來. 彈琴使其奴吹笛.”

20) 『동춘당집』 권13, 서, 〈與閔持叔〉 己酉. “근자에 문의 검담촌에 매우 좋은 산지 한 자리를 정하였는데, 명탄과의 거리가 10리 정도로 가깝네. 가까운 시일 안에 재차 가서 살펴보고서 후사를 이곳에 정할까 하네만, 백호 쪽이 조금 치진 것이 흠일세. 그러나 강산의 뛰어난 경치가 獨樂江·合江과 서로 막상막하이므로 이곳에 작은 정자를 짓고, 달 밝은 밤이면 거룻배에 몸을 싣고 이슬비가 내릴 때면 도롱이를 입고서 한가롭게 여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 범연하지 않네. 하지만 정자를 지으려면 백성들의 전지를 많이 매입(買入)한 뒤에야 가능한데, 집은 가난하고 꺾는 졸렬하여 계책을 낼 수 없는 것이 한탄스럽네.(近卜一山於文義地黔潭村. 絶可愛. 去鳴灘十里而近. 近日再往見之. 吾欲卜後事於此. 而但白虎邊稍下耳. 然江山絶勝. 可與獨樂, 合江相上下. 欲築小亭於此. 月艇煙蓑. 以送餘年. 此心甚非偶然. 而必須多買民田. 然後可成. 家貧謀拙. 無以爲計. 可歎可歎.)”

21) 『동춘당집』 권12, 서, 〈與趙仲初〉 庚戌. “손자아이가 저를 위해 작은 정자 하나를 새로 지었으므로 제가 이곳에 와서 거처한 지가 이미 수십 일이 되었는데, 그 정취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스러운 것은 형의 문자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점입니다. 지명은 검담이고 정자의 이름은 保晩으로 정해 걸고자 하니, 부디 대정이 끝난 뒤 휴가를 받아 한가하실 때에 기나 서나 시를 속히 지어 보내 주시면 매우 좋겠습니다.(兒孫爲我新構一小亭. 弟之來處已浹數旬. 其趣不勝言. 而獨恨兄之文字時未及成矣. 地名黔潭. 亭名欲以保晩扁之. 或記或序或詩. 須趁大政後呈告暇時. 速就以寄至佳.)”

뛰어난 가사인데, 너는 그 뜻을 아느냐?’라고 하고서, 그에게 송강의 〈관동별곡〉을 부르게 하였다. 조금 뒤에 어부가 와서 강에서 잡은 물고기 몇 마리를 올리자, 선생은 회를 치게 하시고 홍주석을 돌아보며, ‘퇴계와 송강 때에도 이런 풍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였다.”²²⁾

그러나 동춘당은 우국애민의 일념이 밤낮으로 잊혀 지지 않았다. 그토록 바라던 정자 보만정이 완성되고 어선까지 만들어졌으나, 정자 주변 강호의 흥취와 한가로이 짝하는 백구를 즐길 수 없었다.²³⁾ 임종할 때에는 “사람들에게 만사와 뇌사를 청하지 말고 무덤 앞 조그마한 표석에 이름 석 자 만을 새겨두라”고 당부하였다. 호서사림의 종장으로 중앙과 향촌을 넘나들며 경세가·교육가로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그였으나 소박한 삶을 추구하였다.

동춘당가 사람들은, 퇴계의 〈어부사〉와 송강의 〈관동별곡〉을 즐길 줄 알았던 선조 송준길의 섬세한 문학적 감수성을 존중하고 계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선조에 대한 존모의식은 선대가 남긴 쪽지 한 장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문화전통으로 이어졌다. 여기에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대한 양의 가전 문헌자료 가운데 여성관련 자료가 적지 않게 전승되어있음이 그 증거이다. 한 예로 한글필첩 『선세언독』 소재 40건의 한글편지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세언독』에는 각 편지마다 편지를 쓴 사람의 인물정보를 두주로 기록해 놓았다. 아마

22) 『동춘당집』 별집 제9권, 부록 〈유사〉, 황세정. “先生以退溪先生漁父詞。膾置冊中矣。及來黔潭後。逢著隣居善歌者洪柱石。使之唱之。乃曰。退溪此曲。實爲絕調。而如鄭松江關東別曲。亦是絕調。汝知此意否。仍使之更唱松江關東別曲。俄而。漁人來獻江魚數尾。先生使之作膾。顧謂洪柱石曰。未知退溪。松江時。亦有此風味否。”

23) 『동춘당집』 권13, 서, 〈答閔公瑞〉 庚戌. “이곳에는 강가의 정자가 비로소 완성되었고 어선도 다 만들어졌네. 지명은 검답이고 정자 이름은 보만인데, 홀로 와서 조용히 지낸 지가 이미 한 달이 되었으니, 족히 여생을 편안히 보낼 만하네. 그러나 憂國愛君의 일념이 밤낮으로 잊히지 않아, 강호의 흥취와 백조를 한가로이 짝하는 즐거움이 있는 줄을 모르겠으니, 괴로운 일이네.(此間江榭初成。漁艇亦就。地曰黔潭。亭曰保晚。獨來靜處。已及一朔。足以穩過餘生。而惟是憂愛一念。日夕耿耿。不知江湖之有趣興。鷗鷺之爲閑伴。苦事苦事。)”

도 먼 미래의 후손에 대한 배려일 것이다. 다음은 김호연재 한글편지 한 건에 첨기 되어있는 후손들의 기록이다.

①“此。高祖妣安東金氏遺札。同敦寧公任堤川時所上者也。今考日月不差
謹識。玄孫文熙敬書。壬戌六月廿五。”

②“六代祖妣安東金氏手札”

①은 김호연재의 현손 송문희(1773-1839)의 고증기록이다. 김호연재가 시숙 송요경에게 보낸 편지 앞면 끝자락에 쓰여 있는 것이다. 내용은 “이는 고조할머니 안동김씨가 남긴 편지이다. 동돈령공(시숙 송요경)이 제천 현감 재직 시에 보낸 것이다. 지금 날짜를 상고해보니 어긋남이 없으므로 삼가 기록한다.”는 것이다. 이 기록을 남긴 해는 1802년(임술)이다. 김호연재 사후 80년 만의 일이다.

②의 기록은 김호연재를 6대 조비라 부르는 송종오(1828-1904)의 고증 기록이다. 같은 편지 뒷면에 써놓은 것이다. 결국 ①②는 김호연재의 한 건의 편지에 세대를 달리하는 후손 두 사람이 고증을 해 놓은 기록인 것이다. 이러한 고증기록은 소장 한글편지마다 거의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대가 남긴 낱장 조각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한 동춘당가 사람들의 인문학 정신. 그 정신이 있었기에 여느 가문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350여년 12세대의 간단없는 문화유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²⁴⁾

이러한 가문 전통 아래에서 김호연재의 원활한 문학 창작활동이 가능

24) 동춘당가 여성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3년여에 걸쳐 대하가문소설 『유씨삼대록』 19권과 『유효공전』 7권을 필사하고 권마다 필사기를 남기기도 하였다. 필사기의 한 예로, “어마님 겨오셔 이 책을 벗기오시라 적년 벼르오더니 거창 지필을 어더 빅봉 동서와 벗겨 어마님 소원 일위 겨오시니 내 즈손들이 세던 기물을 삼아 삼가고 공경하와 뜻을 맞즈을 지어다”가 있다. 시어머니가 이 책을 베끼려고 몇 년을 별렀고, 백봉 동서와 함께 이 책을 베껴 시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었으니, 자손들은 세전기물을 삼아 삼가고 공경하여 뜻을 받들라는 내용이다. 몇 백 년을 내려오는 동안 후손들은 그 바람을 저버리지 않았다. 동춘당가는 다양한 방식의 여성 문화가 유지되고 있었다.

하였고, 남녀 후손들은 한문과 한글의 이중 언어 체계로 김호연재의 작품을 향유하고 전승시켰던 것이다.

3. 金浩然齋 한시집 『浩然齋遺稿』의 편찬·전승

김호연재와 김호연재 문학작품의 존재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사후 250여 년 동안 동춘당의 손자 송병하(1646-1697)가에서 필사본 여러 종이 가전되어 내려왔다. 이후 1977년 호연재의 9대손 송용억(1914-2005)에 의해 처음으로 『浩然齋詩集』(송조빈 서, 송용억 발) 1책이 영인본으로 엮여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 책은 발행부수가 적고, 번역되지 않았던 한계로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다.

김호연재의 존재와 문학작품이 학계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1995년 이후의 일이다.²⁵⁾ 10대손 송봉기(1937-2012)가 위의 『호연재시집』에 <自警篇>을 더하고, 후손들의 각종 기록을 부록으로 첨가하여 번역 출간하였다.

김호연재의 시집은 몇 권의 이본이 있다. 『聯珠錄』·『鰲頭追到』·『浩然叢遺稿』·『浩然齋詩集』·『浩然齋遺稿』 등이다. 이러한 다양한 시집들의 존재양상은 김호연재의 한시가 송씨 가문에서 세대 간에 특별한 관심 속에 향유·유통되었음을 방증하는 일이다. 세대별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호연재 시집의 전승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聯珠錄』 : 김호연재의 한시 <夢歸行>~<敬贈諸兄主求次>까지 총 31수가 수록되어있다. 이 시집은 현재 동춘당가에만 전해 내려온 유일본이다. 『연주록』은 1703년(계미) 김호연재의 백씨 김시택(1660-1713)이

25) 송창준 역, 『호연재유고』(향지문화사, 1995.) 박요순은 이 번역본의 해제를 썼다. (박요순, 「호연재와 그의 문학유산」, 『호연재유고』, 향지문화사, 1995. 209~222쪽.)

도모하여 만든 시집으로 형제와 서모 울산이씨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²⁶⁾ 이 때 김호연재의 나이는 23세로 혼인 한지 4년째 되는 해이다. 김시택은 부모 김성달·이옥재 사후, 형제들의 뜻하지 않은 죽음이 잇따르자 형제간의 그리운 정을 시로 짓고 동생들에게도 화답시를 짓도록 하였다. 서모 울산이씨의 한시도 함께 수록했다. 김시택의 <次庶母明字絶示兄弟共次>, 김시택의 <次庶母詠愁詩韻>·<又次庶母夜雨寫景韻>·<晚晴次庶母霞字>, 김시윤의 <次江村卽事韻>, 김호연재의 <兄弟共次庶母明字絶> 등이 서모 울산이씨의 시에 차운한 시이다.

『연주록』에는 8명 172수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²⁷⁾ 『연주록』은 매 시의 시제 밑에 작자 명을 표기해 놓았는데, 호연재의 경우에는 ‘八弟宋光州宅’ 또는 ‘八弟’이다. 호연재를 ‘宋光州宅’ 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점은, 호연재의 남편 송요화가 광주목사를 제수한 1748년(무진) 10월 23일 이후 일 것이다.²⁸⁾ 이로써 본다면 현전 동춘당가 소장 『안동세고·연주록』은 적어도 김호연재 사후, 누군가에 의해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장서인은 호연재의 현손 송규희(1769-1819)의 것으로 ‘恩津·宋奎熙·文伯’이 각각 찍혀있고, 표지 이면에는 송규희의 아우 송문희(1773-1839)의 고증기록이 있다.²⁹⁾

다음 도표는 『연주록』과 각종 이본의 김호연재 한시 수록 상황을 대조한 것이다.

표1. 【『연주록』과 각 이본의 한시 수록 현황】

26) 김시택, 『연주록』서, “時癸未季春。舍伯以書于金鰲庵。”

27) 문희순 역주, 위의 책, 19~23쪽.

28) 송정희, 『덕은가승』13, <송요화>조. “戊辰十月二十三日。除光州牧使。”

29) 문희순, 「안동세고·부연주록의 작품세계」, 『한국언어문학』49, 한국언어학회, 2002. 73쪽.

번호	『연주록』	『오두추도』	『호연재유고』	『호연직유고』 (『증조고시고』상·하)
1	夢歸行	夢歸行	夢歸行 ³⁰⁾	몽귀향
2	送春感懷	送春感懷	送春感懷 ³¹⁾	송춘감회
3	其二	其二	其二	×
4	春夜	春夜	春夜	×
5	感春	感春	感春	감춘
6	溪堂偶吟	溪堂偶吟	溪堂偶吟	계당우음
7	春恨	春恨	春恨	춘흔
8	花山感懷復用情字	追次花山感懷韻	花山感懷復用情字	화산감회부용정즈
9	和換韻	兄弟共次庶母明字絶	和庶母明字絶	화셔모명즈결
10	四月十四日兄弟遊北園 呼韻雜賦	四月十四日兄弟遊北園 呼韻雜賦	四月十四日兄弟遊北園 呼韻雜賦	스월십스일형데북원 잡부
11	曩者伯氏思戀諸弟次杜 律十五首乃以一軸見投 阻面慕想之餘得此頗以 慰情信筆次韻先得十餘 首錄呈	曩者伯氏思戀諸弟次杜 律十五首乃以一軸見投 阻面慕想之餘得此頗以 慰情信筆次韻先得十餘 首錄呈	曩者伯氏思戀諸弟次杜 律十五首乃以一軸見投 阻面慕想之餘得此頗以 慰情信筆次韻先得十餘 首錄呈	낭빅시스년제데두 늘십오슈내이일축견투조 면모상지여득즈과이위 정신필츠운선득십여슈 녹덩
12	次屬四兄	屬四兄	次屬四兄	츠속스형
13	次屬五兄	屬五兄	次屬五兄	츠속오형
14	次韻悼念七兄	悼念七兄	次韻悼念七兄	츠운도렴칠형
15	春景	×	×	×
16	落花	×	×	×
17	又	×	×	×
18	次韻悼念仲氏 ³²⁾	悼念仲氏	次韻悼念仲氏	츠운도렴등시
19	憶家雜次 ³³⁾ (2수)	憶家雜次	憶家雜次八首	억가잡츠팔슈 ³⁴⁾
20	"	"	"	"
21	次韻效古體 (6수)	效古體	"	"
22	"	"	"	"
23	"	"	"	"
24	"	"	"	"
25	"	"	"	"
26	"	"	"	"
27	次紫荊詩韻	次伯氏感紫荊詩韻	次伯氏紫荊詩韻	빅시츠형시운
28	次人字	次人字	次伯氏人字	츠빅시인즈
29	對月思家	對月思家	對月思家	디월스가
30	先忌日感懷得古言寄家	先忌日感懷得五古寄家	先忌日感懷得古言寄家	션기일감회득고언기가
31	敬贈諸兄主求次	×	×	×

위의 도표에서 <春景> · <落花> 2수 · <敬贈諸兄主求次> 시 네 수는 『오두추도』 · 『호연재유고』 · 『호연지유고』에는 수록되지 않았고, 『연주록』에만 실려 있는 한시이다.

② 『鰲頭追到』 : 16면 총 34수의 김호연재 한시가 실려 있다. 이 시집의 두 군데에 시 창작 년도를 기록해 놓았다. 시집의 서두에 “自癸未至乙酉丙戌”이라는 기록이 있다. 계미는 1703년, 을유는 1705년, 병술은 1706년이다. 시집의 중간부분 <相逢行> 시제 아래에는 무술년이라 기록하였다. <相逢行>은 1718년(무술, 호연재 38세)에 형제를 만난 감회를 적은 시이다. 호연재는 1699년 10월 16일에 혼인하였다. 『오두추도』는 혼인 후 4년째부터 지어진 시들을 모아 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夢歸行>~<先忌日感懷得五古寄家>까지는 『연주록』의 순서와 같고, 여기에 <相逢行> · <聯句> · <仲氏湖中之行。與叔兄及靜以到此。至其歸時。靜雖不來。又携土鷹而至。他鄉窮峽。四兄妹相逢。誠餘生難得之樂。不勝喜幸。仍成長短句以呈> · <聯句> · <戲>³⁵⁾ · <贈土鷹> · <山居卽事> 시가 새롭게 수록되어 있다. 『연주록』과 『오두추도』 소재 한시의 주제는 모두 흥성 오두리 안동김씨 친가 관련 시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③ 『浩然叅遺稿』 : 김호연재의 한시 <辛卯仲春上澣。登山煮艾。呼韻共賦>~<微雨>까지 총 93수의 시가 수록되어있다. 신묘년은 1711년으로 호연재가 31세 되던 해이다. 이 시집의 첫 시가 신묘년 2월 상순 작품임을 감안하면, 이 시집은 호연재 30대 이후에 지어진 시들로 생각된다. 이 시

30) 시제 밑에 ‘以下拾遺’라는 세주가 있다.

31) 시제 밑에 ‘以下聯珠集撫出’이라는 세주가 있다.

32) 이 시에는 ‘當在春景上’이라는 세주가 있다.

33) 이 시 끝부분에 ‘以下憶家雜次’라는 세주가 있다.

34) <次韻效古體> 6수는 <憶家雜次> 2수를 포함하여 『호연지유고』에 <억가잡츄팔슈>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35) 『오두추도』에는 제목이 빠져있다. 『증조고시고』에 <회>라고 제목 하였다.

집은 시구 가운데 틀린 글자, 또는 다른 본과 의심이 되는 구절에 두주와 미주에 주목으로 고증해 놓은 특징이 있다. 수록 시 중 <大叔陞忠原伯> 2수 가운데 두 번째 시와 다음 시 <望月>의 제목까지 오려져 없어지기도 하였다. 아래 ④의 『浩然齋遺稿』에서는 <大叔陞忠原伯>시가 단 수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시집의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 <閑情> 3수·<湖亭>·<次德昭灑亭感懷韻>·<醉作>·<寫景>·<微雨> 여덟 수의 필체는 앞부분의 필체와 확연히 다른데, 호연재의 아들 송익흠(1708-1757)의 필체로 추정된다. 『浩然齋遺稿』는 송익흠의 필체 개입과 다양한 형태의 메모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가장 많이 애독된 김호연재 시집으로 추측된다.

④ 『浩然齋遺稿』: 김호연재의 한시 총 130수가 수록되어 있다. 『浩然齋遺稿』는 위 ③의 『浩然齋遺稿』 수록 93수 + <夢歸行>·<自傷>·<秋夜>·<病中憶弟兄>·<憶三兄>·<夢覺吟>·<奉和伯氏感情韻>·<又>·<失題>·<失題>·<雲水行>등 11수 + ①의 『연주록』에서 26수를 더하였다. 이 시집은 특별한 주석 없이 한 사람의 필체로 정리한 것이다. 시집 안에 “以下聯珠集中撫出”, “以下拾遺” 등의 기록이 있으며, 기존의 김호연재 시집을 총망라한 형태이다.

⑤ 『浩然齋詩集』·『浩然齋遺稿』: 『浩然齋詩集』은 위 ④의 『浩然齋遺稿』본을 1977년에 호연재의 9대손 송용억이 영인 출간한 것이다. 『浩然齋遺稿』는 ④의 『浩然齋遺稿』에 김호연재의 <자경편>과 후손들의 호연재 관련 기록들을 부록으로 실고 번역하여 송용억이 1995년에 발간한 것이다.³⁶⁾ 김호연재의 존재와 문학세계가 학계에 본격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이 때부터이다.

36) 송용억 편, 앞의 책.

이상에서 검토한 바 각 시집별 김호연재 한시 수록 작품 수는 『聯珠錄』 31수, 『鰲頭追到』 34수, 『浩然叢遺稿』 93수, 『浩然齋遺稿』 130수이다. 결국 현전 김호연재 한시는 ② 『鰲頭追到』 34수 + ③ 『浩然叢遺稿』 93수 + ②③시집에 없고 ④ 『浩然齋遺稿』만 실려 있는 10수 + ① 『聯珠錄』에만 실려 있는 <春景>·<落花>(2수)·<敬贈諸兄主求次>시 4수, 합하여 총 141수가 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민찬³⁷⁾과 윤현숙³⁸⁾은 136수, 손찬식³⁹⁾은 137수로 분석한 바 있다. 시집 『연주록』의 발굴 이전에 발표된 논문들이어서 발생한 오차이다.

김호연재의 또 다른 산문작품으로 <자경편>이 있다. <자경편>은 김호연재가 혼인하고 10여년이 된 시점에서 지어진 것이다.⁴⁰⁾ 김호연재가 최초에 이 <자경편>을 지었을 때의 문자는 한문이었다. 그런데 이 한문본이 → 한글본 → 한문본으로 지속적으로 유통되었다. 다음 기록은 김호연재의 외손 김종걸이 쓴 것으로, 당시에 한글본으로 유통되던 <자경편>을 다시 한문본으로 제작했다는 내용이다.

“이 <(자경)편>은 본래 문자(한문)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이 드나, 다만 언문(한글)으로 기록한 것이 집에 전해질 뿐이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일찍이 이것을 한으로 여기셨다. 또한 이 <(자경)편>의 말은 부녀에게만 본받을 바가 아니어서, 마음을 가라앉혀 깊이 음미해보면 또한 장부에게도 경계되는 것이 많다. 종걸은 삼가 그 말을 번역하고 기록하여 내외 자손들로 하여금 다 자세히 보게 하고자 한다. 자구 사이에 감히 하지 못할 증감을 하였으니, 두려운 것은 문장을 숭상하여 본지를 틀려 잘못되게 함이다.”⁴¹⁾

37) 민찬, 앞의 책, 158쪽.

38) 윤현숙, 앞의 논문, 31쪽.

39) 손찬식, 앞의 논문, 89~129쪽.

40) 김호연재, <자경편>서. “自于歸今至十餘年”

41) 김종걸, <자경편>발. “此篇。疑本以文字締成。而只有諺記傳于家。先慈親嘗以爲恨。抑此篇之言。不獨婦女之所可儀。則潛心玩索。亦多爲戒於丈夫者。鍾杰。謹爲翻錄其辭。欲令內外子姓咸得詳觀。而字句之間。不敢妄有增損者。懼或尙詞藻而違失本旨也。”

이 기록의 대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자경편>은 본래 문자(한문)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 ② 지금은 언문(한글)으로 기록한 것이 집에 전해질 뿐이다.
- ③ 돌아가신 어머니(호연재의 딸, 김치공 부인)께서 일찍이 이것을 한으로 여기셨다.
- ④ 이 <자경편>의 말은 부녀에게만이 아니라, 장부에게도 경계되는 것이 많다.
- ⑤ 종결은 삼가 그 말을 번역하고 기록하여, 내외 자손들로 하여금 다 자세히 보게 하고자 한다.

이 기록은 김호연재의 외손 金鍾杰이 1796년 7월에 쓴 것이다. 김호연재 사후 74년 만의 일이다. 김종결은 <자경편>이 원래 한문본으로 존재하였다고 말하였다. 이 한문본은 김호연재 자신이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문본 <자경편>은 여성 독자들을 위해 다시 한글로 번역되어 유통되었고, 그러다가 한문본은 실전되었다. 호연재의 외손 김종결은 어머니 은진 송씨(1717-1784)가 살아생전 한문본이 없어진 것을 매우 한스럽게 여겼으므로 다시 한문본으로 재번역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김호연재의 작품은 이 집안 남녀의 모범적인 독서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김호연재의 <자경편>은 남성과 시대, 불합리한 조선사회에 대한 선언문 같은 내용이 적지 않다.

“일찍이 들으니 부인이 살아계실 때에 친족들이 누가 공경하고 흠모하지 않으리오 마는, 여러 아래 사람들이 왕성하고 이성이 서로 모여 시고 짠맛이 가지런하지 않은 것이 많았다. 지주부군이 젊어서 호방하여 법도에 절실하지 않았다. 부인이 고결한 지조를 안고 마음속에 쌓이어 숨은 근심이 있으므로 <(자경)편>중에 가끔 <이소경>의 감개한 뜻이 있다.”⁴²⁾

42) 김종결, <자경편>발. “竊嘗聞夫人之在世也。親黨孰不敬慕。而群從方盛。異姓相聚。酸醜之不齊者多矣。知樞府君。少而豪曠。不切切於繩墨。夫人抱蘊孤潔。心有隱憂。故篇中往往有離騷感慨之意。”

위의 기록도 김종걸의 솔직한 고백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여성들이 문학행위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다. 조선의 여성지식인들은 ‘半啞’, 문자 그대로 ‘반병어리’로 살아야 했다.⁴³⁾ 여성 자신이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이 어느 정도 무리 없이 살아가는 방편이 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탁월한 지적 수준과 사유체계를 가졌던 김호연재는 시대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에 대한 시각이 다른 가문에 비해 열려있었던 동춘당가라 하더라도 시대 생활은 늘 敵에 포위되어 있는 듯했다.⁴⁴⁾ 시와 술로 자신을 위로하며, 세상 사람들이 미치광이라 비난해도 혐의치 않겠다고 자주 독백을 하였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⁴⁵⁾

이상에서 김호연재의 한시와 산문 작품은 동춘당가 후손들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며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靑松沈氏 국역 한시집 『호연직유고』의 필사·향유

청송심씨는 김호연재의 증손부이다. 아버지는 예천군수를 지낸 沈鏞, 남편은 양근군수 宋啓來(1748-1799), 아들은 고령현감 宋奎熙(1769-1819)이다. 시증조모 김호연재의 한시를 한글로 음사하고 번역한 시집 『호연직유고』를 필사하였다. 『호연직유고』는 애초에 단권이었으나, 후손 중 누군가가 상·하권으로 분권하여 표제를 『曾祖姑詩稿』上·『曾祖姑詩稿』下라 하였다.

『호연직유고』는 청송심씨가 1814년(갑술, 순조14) 아들 송규희의 부임

43) 조선후기 시문집을 남긴 朴竹西(1819-?)는 자신의 호를 ‘半啞堂’이라 짓기도 하였다.

44) 『호연재유고』, <屬五兄>, “黯黯愁懷苦。常如在敵圍。”

45) 『호연재유고』, <閑情>. “詩酒任隨意。不嫌世稱狂。”

지 고령 관아에서 필사를 마쳤다. 청송심씨는 68세에 졸하였는데, 운명하기 두 달 전⁴⁶⁾까지 죽음을 무릅쓴 정성과 노력으로 『호연직유고』를 완성시켰다고 회고하였다. 다음은 그러한 정황을 기록한 청송심씨의 『호연직유고』 후기이다.

“세지 갑술 오월 십이일 고령 아들의서 시작하여 녹월 초 오일 필서 본초를 벗겨두고 칙 업서 수십여 년을 경영하다가 비로소 덩셔하나 내 나히 녹십 팔이라 글시 늙고 눈 어두온디 그러나 부시 업서 죽모화 쓰니 희괴하나 적심으로 공드려 일위시니 늬 빌여 상에 말디어다”

이 필사 후기 몇 줄은 청송심씨가 시증조모 김호연재 한시작품의 국역본 필사를 필생의 업으로 삼았던 모습을 감지할 수 있다. 후기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 ① (『호연직유고』를) 갑술(1814)년 (아들이 현감으로 있는) 고령에서 5월 12일 필사를 시작하여 6월 5일까지 마쳤다.
- ② 초고를 베껴두었었으나 책이 없어서 수십여 년을 방침만 세웠었다.
- ③ 비로소 (초를 잡았던 글을) 정식으로 옮겨 베껴 썼다.
- ④ 내 나이가 이미 68이나 되어 늙어서 눈이 어두워 글씨가 좋지 않다.
- ⑤ 게다가 (마땅한) 붓이 없어서 주워 모아 썼으니 괴상하고 야릇한 일이다.
- ⑥ 그러나 거짓 없는 참된 마음으로 공을 들여 이루어 낸 것이다.
- ⑦ (후손들은) 남에게 (이 책을) 빌려 쥐 손상시키지 말라.

청송심씨의 이 후기를 보면, 동춘당가에 이미 국역본 호연재 시집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송심씨는 이 국역본 시집을 정서본으로 베끼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마음을 써왔다. 68세 고령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2개월 전, 초복이 가까운 더운 날씨에 필사작업에 걸린 시간은 채 한 달이 안 되었다. 목숨을 걸고 한다는 말이 여기에 걸맞을 듯하다. 사실 청송심씨의 건강은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춘당의 둘째손자 宋炳

46) 8월 21일 졸.

夏가에는 청송심씨의 한글편지가 수십 건이 소장되어 있다. 청송심씨는 21세의 나이에 이미 “내 병도 잘 하면 스망지환은 업슬 듯 호오니”⁴⁷⁾라는 무거운 내용의 편지를 남편에게 보내고 있다. 이 한글편지에 의하면 청송심씨는 갓 스무 살을 넘긴 젊은 시절부터 병마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다.

청송심씨의 질병에 관해서는 청송심씨의 며느리 청풍김씨(1769-1823)의 편지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청풍김씨는 시아버지 송계래에게 보낸 때번의 편지에서 시어머니의 환후를 걱정하였다.⁴⁸⁾ 청풍김씨는 시어머니의 병을 속이 타들어 가도록 걱정하며 ‘민박(憫迫)·초민(焦悶)·급급·민

47) ○정해년(1767) 12월 10일 편지. 시집 온 지 6년 째 되던 해이다.

○경술년(1790) 1월 17일. “막음이 병후로 고희호여 스연 고희호오니”. “나는 호로 여상홀 적이 업고 안질지 고극하니 괴롭고”등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남편 송계래에게 보냈다.

48) 청풍김씨의 한글편지는 약 68건이 전해진다. 거의 매 편지마다 시어머니의 환후 문안이 들어있다. 대강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유년(1789) 12월 26일. “어마님겨오셔 요스이는 환후 더 못호여 디내오신다 호오니 외오 잇스와 듯즈올적 마다 돕궤 초민호은 하정을 엇지 다 알외오리잇가”

○경술년(1790) 9월 10일. “어마님겨오셔 당 미령 둥이오시니 급궤 호와 호읍느이다”

○경술년(1790) 9월 16일. “어마님겨오셔 곳궤 이 종기로 편치 못호읍시니 하정의 민절호와 호읍느이다”

○신해년(1791) 2월 10일. “어마님겨오셔 당 미양호오시고 요스이는 안질도 너모 대단호오시니 급궤 민망호와 호읍느이다”

○신해년(1791) 2월 22일. “어마님겨오셔 대단 편치 못호읍셔 늙즈와 디내오시는데 반찬이 업스오니 구미를 붓치오실거시 업스오니 더욱 급궤 민망호와 호읍느이다”

○임자년(1792) 1월 8일. “어마님 병환 조만과 고희이 무상호오시니 갈스록 하정의 급궤 호은 말씀 엇디 다 알외오리잇가”

○임자년(1792) 1월 20일. “어마님 학환 일양 감세 업스오시니 하정의 민망 초전호읍고”

○갑인년(1794) 8월 30일. “어마님겨오셔 어제 쏘 적이 동호오셔 황궤 이 디내오시니 급궤 초민호오를 엇디 다 알외오리잇가,

○갑인년(1794) 10월 20일. “어마님겨오셔 당 미령 둥 디내오신다 호오니 민망호읍고”

○을묘년(1795) 12월 29일. “어마님겨오셔 오늘 삼일지 하 대단이 알즈오시니 민망 급궤 아모리 아읍는 병환이라도 하 마이 알즈오시니”

○을묘년(1795) 8월 29일. “어마님겨오셔 종기도 지금 저러호오시고”

○무오년(1798) 11월 14일. “어마님겨오셔는 조곰이라도 낫즈오신가 시브오니 하정의 다항호오되 브르와 잇스오니 하정의 답궤 죄 만스와 호읍느이다”

절(悶絶)·초전(焦煎)·민망(憫惘)’ 등의 언어로 표현하였다. 청송심씨가 앓았던 병들은 ‘안질·종괴·학환(瘡疾)·적(癩)⁴⁹·감기’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나, 평생을 따라다녔던 숙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⁰

청송심씨는 평생을 숙병과 안질 등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까닭으로 시증조모 김호연재의 국역 한시집을 베껴두려고 그다지 노심초사하였을까? 방대한 분량의 국역본 시집 『호연직유고』. 청송심씨는 그 목록하지 않은 작업을 왜 죽음 직전까지 도모하였던 것일까? 그 해답을 찾기란 간단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조심스럽게 시증조모 김호연재의 삶과 문학에 대한 존모의식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국역본 시집의 존재양상은 김호연재의 한시가 송씨 가문에서 세대 간에 비상한 관심 속에 향유되었음을 증명하는 단적인 예이다. 여성 후손들도 김호연재 한시의 향유 주체, 곧 독자로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한시가 한글로 음사·번역되어 유통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선대 여성의 한시를 한글로 번역하여 후손들에게 읽힌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⁵¹

인문학을 사랑한 시증조할머니. 그리고 그 시증조할머니의 삶과 문학세계를 존모하였던 증손자며느리. 바로, 이 정신이다. 이러한 문화적 전통이 이 집안의 여성문화를 꽃 피웠던 것이다. 동춘당가 소장 각종 여성관련 자료와 문헌은, 동춘당가의 여성문화 전통이 근대 격동기를 넘어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되었음이 확인된다.⁵²

49) 癩 : 심한 위경련으로 가슴과 배가 몹시 아픈 병. 심하면 거의 의식을 잃는 상태에 이르며, 주로 여자에게 많이 있는 병이다.

50) ○즉일. “어마님겨오셔 편치 못흐오시더라 흐오디 본 병환이옵신가 흐왓습더니”

51) 최근에 발굴된 19세기 여성시인 綺閣은 충남 청양과 노성에서 문학작품을 생산한 여성으로, 기각의 시문집 『綺閣閒筆』에는 249수의 한시가 한글로 음사·번역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시집은 기각 본인이 엮은 것으로 연구되었다.(부유섭·강문중, 「기각한필연구」, 『고전문학연구』32, 2007, 435~462쪽.)

52) 동춘당가 소장 대하가문소설 『유씨삼대록』19권, 『유효공전』7권은 시어머니와 두며느리가 공동 작업으로 3년간 필사한 것이다. 이외에 요리책 『酒食是儀』, 술 만드는 법을 기록한 『禹飲諸方』 등을 며느리들이 대를 이어가며 기록하였다.

『호연지유고』의 작품 수록 순서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④ 『浩然齋遺稿』와 같은데, 이 시집을 저본으로 국역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호연지유고』에는 앞서 살펴 본 김호연재 한시집 『연주록』·『오두추도』·『浩然叢遺稿』·『호연재유고』 등에 실려 있는 한시 이외에, 지금은 한시 원문이 전해지지 않는 103수까지 우리말로 음사·번역되어 있다. 『호연지유고』에 실려 있는 작품의 수가 현전 김호연재 시집의 여러 이본 가운데 작품의 규모가 가장 방대한 분량이다.⁵³⁾ 결과적으로 현전 김호연재의 시는 위에서 살펴 본 바, 한시 원문이 확인되는 한시 141수, 국역본 『호연지유고』에만 실려 있는 103수를 합하여 총 244수이다.

국역본 『호연지유고』는 한문본 『浩然齋遺稿』와 차별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역본 『호연지유고』에는 한문본 『浩然齋遺稿』에 수록되어있지 않은 번역 작품 103수가 실려 있다. 김호연재의 한시가 국역본으로 존재하게 된 이유는 이 집안 여성들을 위한 일이다. 여성들이 한자에 능통하지 않더라도 한시를 한글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한자를 모르고도 김호연재의 작품을 감상, 즐길 수 있는 이 감상법은 詩歌文學이 ‘노래’로 불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국역 감상법은 김호연재 한시가 노래나 율조림을 통하여 여성들의 생활 속에서 생동하는 장르로 승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다. 특히 『호연지유고』는 군더더기 없는 직역위주의 형태이면서도 운율미를 지니고 있어서 한시작품 번역의 표준양식을 제공해 준다. 아래의 표2는 『호연지유고』에만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다.

표2. 【『호연지유고』에만 수록되어 있는 김호연재의 한시】

53) 그런데 위의 표2 『호연지유고』에만 수록된 국역 시 가운데 번호 99~102의 <무데> 시는 『연주록』에서는 김시제의 시로 소개하였다. 『연주록』과 『호연지유고』 두 책 가운데 한 책에 오류가 있는 셈이다. 본고에서는 『호연지유고』를 따랐다.

번호	詩題	翻譯詩題
1	망월	달을 바라노라
2	외명술회	병드러 누어 회포를 기록하노라
3	신묘즈오두귀회천겸달비너귀후유시고 츄운인별시심스	신묘의 오두로브터 회천의 도라오니 겸달이 되셔 왔다가 도라 간 후 시를 주엇는 고로 츄운하고 인하야 니별홀 쟈 심스를 보너노라
4	기이	글 둘재라
5	작선산근형불능취노계늑형홀즈청산너 견어 영동숙소창졸봉화등형기테시부덩귀평	선산 근형홀 식 청산으로 길을 취치 못하더니 계 늑형이 청산으로브터 와 영동 숙소의 와 보실 식 창졸의 등형의 기테하신 시를 밧드러 화하야 도라 인편의 부치노라
6	기이	그 둘재라
7	기삼	그 셋재라
8	기스	그 넷재라
9	츄달이형운	달 이형의 운을 츄하노라
10	기이	그 둘재라
11	기삼	그 셋재라
12	한덩	한가흔 뜻이라
13	귀회	회포를 기록하노라
14	츄덕쇼운영어화	덕쇼의 운을 화하야 고기잡는 불을 읊노라
15	영송	솔을 읊노라
16	십즈시	열즈시
17	대설	큰 눈이라
18	회견스덜셔	스덜의 편지 보물 갖거하노라
19	덕쇼왕송촌모야환귀티너인음이증	缺 ⁵⁴)
20	유정	그으흔 뜻이라
21	두우	두견이라
22	춘우	봄비라
23	비동감회기스덜	비티골셔 감회하여 스덜의게 브치노라
24	기이	그 둘재라
25	츄운	운을 츄하노라
26	비동감회	비동셔 감회하노라
27	귀증스응	스응의게 브터 쓰노라

28	츄야	그을 밤이라
29	번츄증스딜	번드쳐 츄운햐 스텨을 주노라
30	화덕쇼계줍운 -우츄경턴벽운	缺 ⁵⁵⁾ -우훈 경턴벽 운을 츄호노라
31	우츄등션암운	우츄 등션암운을 츄호노라
32	우기이	우훈 그 둘재라
33	우츄운암	우훈 운암을 츄호노라
34	우츄호션암운	우훈 하션암 운을 츄호노라
35	우기이	우훈 그 둘재라
36	우츄이요누운	우훈 이요로 운을 츄호노라
37	우츄범주귀담운	우훈 비를 귀담의 썩은 운을 츄호노라
38	우츄옥순봉운	우훈 옥순봉 운을 츄호노라
39	우츄숙설마동운	우훈 설마동의셔 자는 운을 츄호노라
40	우츄유기운	우훈 그웁흔 기약 운을 츄호노라
41	우츄신향삼성 ⁵⁶⁾ 암운	우훈 새베 삼션암으로 향하는 운을 츄호노라
42	츄야	그을 밤이라
43	하일우음	너름 날의 우연이 읊노라
44	증우인	벗을 주노라
45	무계	계 업다
46	츄덕쇼모향슈션역운	덕쇼의 저물게야 슈션역을 향하는 운을 츄호노라
47	감별기스딜	니별을 늦겨 스딜의게 브티노라
48	산가즉스	피집의 즉금 일이라
49	턴원상일유감	턴원의 상일의 늦기미 잇도다
50	우음일늘	또 혼 늘을 읊노라
51	딕월	뜰을 디히다
52	스츄딜즈경환상심희츄데딜운 -우츄사딜운	스딜이 서울셔브터 도라와 서로 츄즈니 깃거 제딜의 운으로 츄호노라 -우훈 스딜의 운을 츄호노라
53	우츄진딜운	우훈 진딜 츄호노라
54	우츄	또 짓노라
55	츄인으운(因兒?)	인으의 운을 츄호노라
56	춘일	봄날이라
57	만음	부절업시 읊노라

58	춘	봄이라
59	회임	회롱하여 짓노라
60	기이	그 둘재라
61	유정	그윽흔 뜻이라
62	증	缺57)
63	만음	부절업시 읊노라
64	동지야	동지 밤이라
65	츠으운	아히 운을 츠호노라
66	츠운	운을 츠호노라
67	츠인	사롬을 츠호노라
68	기이	그 둘재라
69	기삼	그 셋재
70	춘음	봄의 읊노라
71	춘	봄이라
72	유션스	곡쥬 일흠이라
73	증	缺58)
74	기이	그 둘재라
75	십즈시	열즈시
76	회부	회롱하여 짓노라
77	츠성둥운	성둥의 운을 츠호노라
78	우츠성둥오두지감운	성둥의 오두의셔 지감흔 운을 츠호노라
79	촌등	믈 등잔이라
80	번츠증스덜	번드쳐 츠운하야 스덜을 주노라
81	기이	그 둘재라
82	평초	부평초
83	샤	缺59)
84	춘회	봄 회포
85	술지	뜻을 펴노라
86	회제덜견방	제덜의 츠자 보물 짓거호노라
87	남초	담비
88	산가우음	산가의셔 우연이 읊노라
89	우음일늘	또 흔 늘을 읊노라
90	회음기	회롱하야 읊혀 브치노라

91	무데	데 업다
92	술회	회포를 기록호노라
93	영미	미화를 읊노라
94	등	缺 ⁶⁰⁾
95	우음	우연이 읊노라
96	칠월칠일야신월초명음일절괴스달	칠월 칠일의 새 들이 처엄으로 붉거늘 혼 절구를 읊혀 스달에게 브티노라
97	실데	데를 일타
98	관희	바다를 보노라
99	무데	데업다
100	기이	그 둘재라
101	기삼	그 셋재라
102	기스	그 넷재라
103	몽회유감	꿈의 도라와 늦기미 있다

둘째, 『호연지유고』에는 인명·관직명·지명·고사·난해어 등에 夾註 雙行의 주석이 달려있다. 그 사례를 『浩然齋遺稿』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 【『호연지유고』와 『浩然齋遺稿』 주석의 사례 비교】

번호	詩題(詩句)		『호연지유고』	『浩然齋遺稿』
1	次德昭°八詠韻	츠덕쇼°팔영운	덕쇼:당질딘흠	德昭:堂姪晋欽
2	送思姪°書所二首	송스딜셔소이슈	×	思姪:堂姪思欽

54) 『증조고시고』 원문에 번역시제가 빠져있다.

55) 『증조고시고』 원문에 번역시제가 빠져있다.

56) ‘성’은 ‘션’의 오자로 보인다.

57) 『증조고시고』 원문에 번역시제가 빠져있다.

58) 『증조고시고』 원문에 번역시제가 빠져있다.

59) 『증조고시고』 원문에 번역시제가 빠져있다.

60) 『증조고시고』 원문에 번역시제가 빠져있다.

3	釋家	석시°의집	석시:부처의성	×
4	簡仲氏乞米	간등시°결미	등시:휘시운	×
5	憶仲氏四郡之遊賦 呈	억등시스군°지유부등	스군:단양제천청풍 영춘스읍이스군이라	×
6	國哀	국익(스기°군은하쳐문)	일기가십년	×
7	秋夜	츄야(빅노쳐쳐대화°뉴)	대화성:ㄱ을의호르 는별	×
8	大叔陞忠原伯	대숙승통원°빅	츄원:츄쥐	×
9	寒天	한뎨(유우승스훅°)	스훅:문스라말	×
10	送別却寄	송별각기(별유경거°작)	경거:옥이라	×
11	失題	실뎨(현포°각쳐량)	현피:신선잇는디	×
12	秋夜憶弟兄	츄야억데형 (독상기천°차차쇼어)	기천:본뎨이란말	×
13	家廟自青山奉還湖 西行過弊廬瞻依一 宿	가묘청산봉환호셔힝과 페려°침의일숙	페려:집을겸칭	×
14	聞仲氏以貢差往可 興與水仙從兄約遊 於四郡土膺誠仲謙 行亦從喜而有作	문등시이공차왕가흥여 슈선°종형약유어스군스 응성등겸힝역종회이유 작	슈선:직명	×
15	付家兒	부가°(오힝지니즉오성°)	다숫가지성:인의네 지신	×
		풍우냥산°귀몽절	풍우호는냥산:증지 태산아리셔맛ㄱ르시 다가풍우를만나도라 가지지못호실식냥산 조틀지으시다	
16	乞米三山守	결미삼산°슈	삼산:보은	×
17	次幼安°上飛來菴 詩韻	츄유안°상비리암시운	×	幼安:堂姪思欽
18	次德昭灝亭感懷韻	츄덕쇼호뎨°감회운	호뎨:읍호뎨	×
19	病中憶弟兄°	병등억데형°	빅시휘시뎨등시휘시 운숙시휘시제시힝계 시휘시정	伯氏諱時澤仲 氏時濶叔氏時 濟時洽季氏時 淨
		(병산°시하쳐)	병산:비안별호	
		(오쥐°히문서)	오쥐:웃머리라	

20	夢覺吟	몽교음(상디범성누°)	범성누:비안고을당호	×
21	奉和伯氏感情韻	봉화빅시운즈통무로부 모지은 (황부망금°쇼여의)	망금:동싱죽다말	×
22	四月十四日兄弟遊 北園呼韻雜賦	스월십스일형데북원잡 부(히슈용용°빅조비)	용용:너르고큰모양	×
23	次屬四兄	츠속스형(결활°녕감설)	결활:니별ㅎ다말	×
24		와병술회(치복구일낙°)	일낙:부모형데다잇 단말	
		(슈핍밍녀°현)	밍녀:밍광	
		(원모장비°덕)	장비:장강	
25		기이(상스블견출동형°)	동형:동녀친형이란 말	
26		동지야 (만물휴쳐숙기°경)	숙기:몹고조흔기운	
27		츠인(숙우°금조혈)	숙우:오래비란말	
28		츄회(영츄영기풍°)	기풍:증즈석말슴	
29		상봉형 (미봉형데억구경°)	구경:부모다이시단 말	
		(스군°형식하태망)	스군:슈령을니르미 라	
30		년구(봉호°비준예)	봉호:넛지즈니샤안 의형즈	
		(뉴세°즈고정)	뉴세:샤안의형너니 도은의글잇말	
31		무데(도식낭간°실)	낭간:대라	
32		기삼(연연삼청°슈)	삼청:서울동명	
		(교교법계°월)	법계:법천골이라	
		(금위규°여각°)	규:서방별, 각:동방별	

위의 표에서 번호 24~32 까지는 한시집 『浩然齋遺稿』에는 실려 있지 않고, 국역본 『호연지유고』에만 실려 있는 시들이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호연지유고』에는 한문본 시집에는 거의 달려있지 않은 夾註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문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주석들이 청송심씨가 필사한 국역본에 성실히 달려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 청송심씨는 『호연지유고』 후기에서,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 “본초를 베껴두었다”고 진술하였다. 현전 『호연지유고』는 청송심씨가 本初에 해당하는 시집을 저본으로 하여 베꼈다. 그런데 그 본초에 해당하는 국역 시집에도 위의 주석이 달려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문본 시집들에서 주석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현전 『호연지유고』 본의 주석은 청송심씨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위의 주석이 청송심씨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청송심씨는 김호연재의 한시작품 내용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있었고, 한문 해독의 수준도 궤도에 올라 있었던 독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호연재 친인척 인물에 대한 이해는 물론 난해한 고사에 대한 풀이 등이 고도의 한문학적 수준을 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호연지유고』에는 한문본 『浩然齋遺稿』에 수록되어있지 않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된 시체가 수록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십즈시>인데, 두 수가 실려 있다. 그 중 한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십즈시>⁶¹⁾

방
황
득원
송당
운명명
슈양양

61) 이 시의 한자는 민찬이 재구해 놓았다.(민찬, 위의 책, 95~96쪽.)

청녀단니
현디도상
정안서천권
한덩학일빵
금성던각춘만
접모시던노향
미쥬수비턴당만
미가일곡풍광옥냥
분분세스공슈연무산
염염유정득여슈은당
석피부싱몽니쟁당경단
하여송독헌둥일취금상

<열즈시>
방ㅎ며
황ㅎ며
대 동산과
술집이로다
구름은 명명ㅎ고
물은 양양ㅎ도다
청녀당과 단니와
거믄 씨와 도의 치마로다
고요흔 칙상의 셔 일천 권이오
한가흔 썸의 학 ㅎ 빵이로다
새 소리는 점점 봄이 느즈믈 씨들니고
나비 춤은 썸로 이슬 향기를 던ㅎ는도다
아름다운 술 두어 잔의 턱식이 장춧 느즈너 ㅎ고
저근 노리 ㅎ 곡도의 브람 비치 서늘ㅎ고져 ㅎ는도다
분분ㅎ 세상 일은 속절업시 연무를 썸라 ㅎ터지고
염염ㅎ 그웁흔 정은 홀노 슈은으로 더부러 기럿도다
앗갑다 저 부싱이 썸 속 긴 거슬 ㄷ토히 저른 거슬 ㄷ토히
엇지 송독헌 가온디 날노 금잔을 ㄷ툼만 ㄷ툼리오

위의 <십즈시>는 잡체시의 하나로 글자로 쌓은 탐이라 하여 ‘층시’ 또

는 ‘보탑시’라고도 한다. 이 시의 첫 출발은 이백이 3·5·7언으로 늘어나는 형식의 시를 지으면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후로 이를 모방한 창작이 이루어졌고 1·3·5·7, 1~7까지 차례로 늘어나는 형태가 나타났다.⁶²⁾ 우리나라 여성시인 雲楚는 <相思詩>라는 제목의 시에서 1~18언에 이르는 보탑시를 짓기도 하였다.⁶³⁾ 호연재의 시는 1언에서 시작하여 10언 18행 110자로 이루어져있다. 시의 내용은 덧없는 인생이 한바탕 꿈속 같은 삶 속에서 방황하며 길고 짧은 것을 다두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송죽헌 가운데에서 금잔 술을 기울이겠노라는 것이다. 분분한 세상일에 지쳐있는 자신의 모습을 다소 관조적인 입장에서 허허롭게 표현한 시이다. 국역본 『호연직유고』는 보탑시라는 원시의 특성에 맞추어 번역시도 보탑의 형식으로 충실히 자수를 맞추어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호연직유고』에는 5언 7언 절구, 율시, 배율, 고시는 물론이고, 위 보탑시 이외에도 자수율에 크게 구애 받지 않으며 자유자재의 시체를 넘나든 한시도 많이 시도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宋浚吉家 여성문학 전통의 문화사적 의의를 겸하여

본고는 호서사림 동춘당 송준길 가에서 18세기 초 김호연재라는 여성시인이 배출되고, 김호연재 사후 90여 년 뒤에 증손부 청송심씨에 의해 국역본 『호연직유고』가 필사된 면면한 여성문학전통의 문화사적 의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춘당은 삶 속에서 인문정신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였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거기에 8대 조비 고흥유씨의 절의, 당고모 이설봉 같은 여성들의 문예적 입지가 드높았기에 여성에 대한 의식이 남달랐던 것으로 생각된다. 동춘당가에서는 19

62) 정민, 『한시 미학 산책』, 솔, 2004, 273쪽.

63) 김지용·김미란 역저, 『한국 여류한시의 세계』, 여강출판사, 2002, 442~445쪽.

세기에도 여성 기행가사 『금행일기』와 『혹양가』를 지은 은진송씨(1803-1860), <겨룡산유산록>과 <온양온수노정기>를 지은 광산김씨가 배출되었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은 많은 여성들이 여성문화의 영역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행위를 한 흔적들이 전적으로 전승되어 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동춘당 자신의 문학적 풍류와 여성에 대한 존모의식이 송준길가 여성문학 전통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문화적 배경 아래에서 다음과 같은 여성문학 전통의 의의를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동춘당가의 여성들은 각기 다른 성씨의 여성들이 이 가문에 시집와, 작게는 회덕의 송씨 가문을 일구어 내었고, 크게는 호서사림의 선비문화를 내조하고 흥기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전통시대에 가문의 융성은 끈끈한 혼맥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어느 가문의 사람을 사위 또는 며느리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가문이 일신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탄탄한 혼맥 네트워크에 의해 가문의 정신적·경제적 세력이 향상되기도 한다. 학맥과 선대의 의리로 혼사가 맺어져 동춘당가의 며느리가 된 여성들은 가문의 실질적인 경영 주체자, 교육자로서 활동하며 자신의 삶을 문학으로 승화시켰다.

둘째, 김호연재는 송준길가 여성문학사의 구심에 존재한다. 김호연재의 문학작품은 『浩然齋遺稿』 소재 한시 작품 141수, 국역본 『호연직유고』에만 실려 있는 103수를 합하여 총 244수이다. 동춘당가에서는 김호연재에 대하여 공경하고 흠모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김호연재가 선원 김상용과 월사 이정구의 후손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김호연재는 조선후기 최고의 문장과 절의의 염색체를 물려받은 사람이다. 그에 걸맞게 뛰어난 문학적 표현력과 실천력을 겸하여 ‘知行兼備’의 모습을 갖춘 삶을 살았다. 명문가의 후손이라는 자부과 자의식이 실천적 지성으로 승화되었던 것이다. 김호연재의 자아 정체성 탐색을 위한 몸부림은 문학작품 도처에서 표현되어 나타났다. “세상 사람들이 미치광이라

고 손가락질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은 시와 술을 뜻에 따라 맡길 수밖에 없다(<閑情> : 詩酒任隨意, 不嫌世稱狂)”고 몸부림치기도 하였다. 후손 남녀들은 그러한 김호연재의 삶을 존송하고 받들었다.

셋째, 청송심씨의 『호연지유고』는 호서지역에서 찬술·유통된 여성한시의 한글번역이라는 중요한 문화현상을 말해준다. 1722년 김호연재가 졸하고 90여 년의 세월이 흐른 1814년, 한문본에도 전해지지 않는 작품 103수가 국역본 『호연지유고』에 수록되었다. 더욱이 한문본에는 없는 주석들이 긴요하게 달림으로 해서 작품의 이해를 도왔다. 이것은 김호연재 한시작품 향유 주체인 동춘당가 여성 독자들을 위한 배려요 문화역량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청송심씨의 『호연지유고』는 여성의 한시를 한글로 음사하고 번역한 시집이다. 호서지역 여성들의 한시 학습과 감상 주체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문학교육 자료이기도하다. 여성의 한시가 한문에서 한글로 유통되었다는 것은, 여성 한시작품의 다양한 향유방식과 더불어 여성들이 문학창작 행위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을 말해준다. 동춘당가의 이러한 인문정신은, 김호연재와 같은 뛰어난 선조의 작품을 필사·암송·독해·번역(한글→한문, 한문→한글)이라는 다양한 방식으로의 향유문화를 갖게 하였다. 김호연재의 문학작품을 수백 년간 세대를 달리하며 전승시킨 동춘당가의 독특한 여성문화의 힘은, 우리나라 여성문학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라 할 것이다.

결국, 동춘당이 호서사림의 종장으로 그 외연을 넓혔다면, 김호연재와 청송심씨 같은 가문 내 여성들은 타고난 자질과 덕성을 문학작품과 생활속 실천으로 그 내연을 다진 것이다. 앞으로 본고에서 다루지 않은 동춘당가의 여성 문학작품이 여성관련 문화유산과 함께 연구될 때, 동춘당가의 온전한 여성문화가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자료>

- 『고문서집성』83(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교주 금행일기』(노태조 교주, 창학사, 1987.)
『김호연재 시집, 법천의 하루』(문희순 역주, 이화출판사, 2012.)
『덕은가승』1·2(송정희 편저, 송창준 역, 향지문화사, 1998.)
『동춘당일기』(향지문화사 영인, 1995.)
『동춘당던』(대전선사박물관, 2010.)
『선세연독』(개인소장)
『선세기몽첩』(대전역사박물관 소장)
『송씨가승』(송정희 편저, 영인본, 이문사, 1986.)
『송촌의 인물과 유적』(향지문화사, 1996.)
『시가점등』(이규경, 아세아문화사영인, 1981.)
『조선후기 가죽연가 「안동세고」·「연주록」』(문희순 역주, 대덕구, 2006.)
『우음제방』(필사본)
『은진송씨 동춘당 문정공 파보』(향지문화사, 1993.)
<은진송씨세계>(필사본, 역사박물관 소장.)
『은진송씨 송준길가문 한글 간찰』(한국학중앙연구원 편, 태학사, 2009.)
『酒食是儀』(필사본)
『호연재유고』(송창준 역, 향지문화사, 1995.)

<논저>

- 김지용·김미란 역저, 『한국 여류한시의 세계』, 여강출판사, 2002, 442~445쪽.
문희순, 「안동세고·부연주록의 작품세계」, 『한국언어문학』49, 한국언어학회, 2002, 69~88쪽.

- _____, 「호서지역 여성 한문학의 사적 전개」, 『한국한문학연구』39, 한국한문학회, 2007, 85~116쪽.
- _____, 「동춘당 송준길가 소장 한글편지에 반영된 생활문화」, 『인문학연구』89,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33~62쪽.
- 민 찬, 『김호연재의 한시 세계』, 다운샘, 2005, 1~200쪽.
- 박요순, 「호연재와 그의 문학유산」, (『호연재유고』, 향지문화사, 1995.) 209~222쪽.
- 부유섭·강문중, 「기각한필연구」, 『고전문학연구』32, 2007, 435~464쪽.
- 손찬식, 「호연재 김씨의 시문학 연구」, (『호연재 김씨의 생애와 문학』, 보고서, 2005.) 151~191쪽.
- 열상고전연구회 편, 『호연재 김씨의 생애와 문학』, 보고서, 2005, 1~318쪽.
- 윤현숙, 「호연재 김씨 시 연구」, 목원대 석사논문, 2001, 1~112쪽.
- 이종묵, 「조선시대 한시 번역의 전통과 양상」, 『장서각』7집, 2002, 59~89쪽.
- 정 민, 『한시 미학 산책』, 솔, 2004, 273쪽.

<인터넷자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번역원(<http://www.itkc.or.kr>)

투고일 : 2013년 7월 15일, 심사 : 2013년 7월 24일~8월 9일, 게재확정 : 8월 9일

<Abstract>

A Traditional and Cultural Meaning in Women's Literature of the Jungil Song Family - Focused on Hoyeonjae Kim and Chungsong Sim*⁶⁴⁾

Moon, Hee-soon(Pai Chai University)

Dongchundang Jungil Song is one of confucianists who represented the Confucian group of Hoseo in the 17th century and the wife of her great-grandson, Hoyeonjae Kim, produced the typical women's Chinese poem of the Joseon Dyanasty period, called 'Hoyeonjae Yugo(Hoyeonjae's posthumous work)'. Also, Chungsong Sim, the wife of Hoyeonjae Kim's great-grandson, transcribed 'Hoyeonji Yugo' which is the Korean translation of 'Hoyeonjae Yugo (호연적유고)'. The cultural phenomenon generated in the Jungil Song family including Hoyeonjae Kim who loved literature and Chungsong Sim who enjoyed literary works of her husband's great-grandson is an unprecedented event in Korean literary history.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define the traditional and cultural meaning in women's literature of the Junggil Song family as follows.

Firstly, the Dongchundang family's women, who have different family names and married into the Junggil Song's family, played a pivotal role from the revival the Song family in Hoideok to the assistance for the classical scholar's culture of the Confucian group of Hoseo. It is tru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0-551-A00059).

that the prosperity of family was resulted from marriage in traditional eras. Sometimes, the refurbishment of one family depended on who the family takes in marriage as a son-in-law or a daughter-in-law and a strong marriage network improved the family's mental and economical influences. 'Educators in the family' such as mothers or grandmothers can be easily found in the academic background of successful men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In other words, those who changed a man to a classical scholar were women.

Secondly, Hoyeonjae Kim was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women's literature history in the Kiho school in terms of the level of life and literature among female literary persons in traditional eras.

Thirdly, it appeared that 'Hoyeonji Yugo' of Chungsong Sim is a significant cultural phenomenon which is the Korean translation of women's Chinese poems written and distributed in Hoseo area. 'Hoyeonji Yugo' of Chungsong Sim is a evidential material with characteristics as a learning and appreciating subject of Chinese poems and literary works of Hoyeonjae Kim and was enjoyed in diverse methods including transcription, recitation, reading, and translation (Korean to Chinese and Chinese to Korean). The traces of these cultural acts by the Jungil Song family have been perfectly passed down to these days. It can be considered as cultural phenomenon including how the Jungil Song family's women enjoyed Chinese poems and showing how deep women came into literature creation activities in that time.

Key words : Dongchundang Jungil Song, Hoyeonjae Kim, Chungsong Sim, Hoyeonjae Yugo, women's life history